

향장

HYANGJANG

no.669



New Year, New Ritual



HERA

SIGNIA
CORE LIFTING
SERUM

HERA

SIGNIA
VITAL LIFTING CREAM

CONTENTS NO. 669



SPECIAL

- 02 TREND 지금의 나를 인정하며 우아하게 나이 드는 방법
- 06 SPECIAL 탄탄한 피부로 오랫동안 빛나는 아름다움
- 16 PRODUCT 집요한 연구 결과로 탄생한 뷰티 프로덕트
- 22 MAKEUP TPO에 따라 달라지는 세 가지 메이크업 룩

PRODUCT

- 28 ISSUE 2026년 뷰티 뉴 트렌드 키워드 10
- 34 FOCUS 설화수 진설 인퓨전 트리트먼트
- 36 FOCUS 홀리추얼 블루 PDRN 더블 앰플
- 38 FOCUS 헤라 UV 프로텍터 톤업 SPF50+/PA++++
- 40 A-DIT SHOP 작년 에디션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이너 뷰티
- 42 HAIR 두피와 모발 마이크로 케어

LIFE & ETC.

- 44 REVIEW 홀리추얼 울트라 너리싱 어드밴스드 아이크림
- 46 NEWS 아름다움의 미래, 미지움
- 48 HEALTH 전신 균형과 젊음을 지키는 숨은 핵심, 가로 근육
- 50 LOOK 헤라 커스텀매치 센슈얼 립와 함께한 반전 메이크업 룩
- 56 ITEM 겨울철 건조한 피부를 확실히 책임지 홀리추얼 제품들

since 1958

<향장>은 1958년 '화장계'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이후 현재까지 68년간 669호를 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뷰티 매거진입니다.

- www.apgroup.com
- hyangjang@mckorea.com
- copyright 2026 amorepacific

※<향장>은 www.apgroup.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전국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는 매거진입니다.

발행일 2026년 1월 1일
발행 통권 669호
발행인 김승환
편집인 홍재욱
발행 (주)아모레퍼시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제품 문의 080-023-5454
제작 문의 뉴커머스 콘텐츠팀
인쇄 세종씨앤피(주) 02-467-5041
인쇄인 나경록
기획·편집 MCK Publishing Co., Ltd
에디터 최향진, 이성진, 고희수, 최유진
디자인 이슬지

special trend

Age Gracefully

나이는 결함이 아니다. 축적된 삶의 흔적을 얼굴과 몸짓과 태도에 담아내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새로운 미감, 우아하고 건강한 방식의 나이 듦을 발견한다.

editor **LEE SUNG JIN**

You Are Aged

할리우드에서 '시간이 멈춘 얼굴'로 통하는 틸다 스윈튼은 어느 인터뷰에서 "늙어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미 나이가 들긴 했죠"라고 담담히 말했다. 나이 듦을 부정하지도, 그 흐름에 매달리며 싸우지도 않는 태도. 우아한 나이 듦을 실천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누구에게도 예외 없는 시간을 억지로 거스르려 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품고 살아가는 것.



메이크온
스킨 라이트 테라피 3S.
47만5천원.



Home Clinic

우아한 노화의 기본은 결국 건강한 피부다. 단발성 관리보다 꾸준한 루틴이 탄탄한 결과 탄력을 만든다는 인식이 높아지며 홈 케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5년 들어 대표적인 유통 플랫폼 쿠팡의 뷰티 디바이스 검색량은 전년 4분기 대비 86% 증가했고, 다른 플랫폼의 관련 카테고리도 전년 대비 최대 10배 이상 성장했다. 시장 규모 역시 2018년 5,000억원에서 2022년 1조6,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장되었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이렇게 인기가 높은 이유는 확 달라진 기술력 때문이다. 단일 기능 중심에서 벗어나 광선이나 전류, 초음파를 결합한 복합 케어가 가능해졌고, 개인 피부 데이터 기반 맞춤 프로그램까지 등장하며 그야말로 '집 안의 에스테틱'으로 진화했다.

Aging Check List

우아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기 위해
꼭 점검해야 할 것들



규칙적인 데일리 루틴을 지키고
있는가?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가?



피부 장벽을 지키는 기초 스킨케어
루틴을 수행하고 있는가?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땀이 나는
운동을 하고 있는가?



뜨거운 물 세안이나 무리한 각질 제거
등으로 피부를 혹사하고 있지 않은가?



충분한 양의 물과 항산화 식품,
양질의 단백질을 챙겨 먹고 있는가?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가?



스마트폰을 바른 자세로,
적당한 시간만 사용하고 있는가?



나를 기본 좋게 하는
소소한 방법이 있는가?

Lifestyle Therapy

시간이 지날수록 더 우아해지는 아름다움은 스킨케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안정적인 삶이 깃든 얼굴로 다듬는 것이 핵심. 규칙적 수면, 충분한 수분 섭취, 나에게 맞는 스킨케어에 명상, 요가, 호흡, 산책 같은 마음 정돈 루틴이 더해질 때 비로소 균형이 맞춰진다. 웰니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도 이 때문. 결국 '우아한 나이 듦'은 외모 관리 기술이 아니라 삶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집을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자기 돌봄 공간으로 꾸미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주로 여분의 방을 홈 짐이나 음악실, 명상 룸 등으로 바꾸는데, 예쁘게 꾸미는 수준을 넘어 소리, 빛, 공간 구조, 공기 질 등을 관리해 정신적 휴식과 건강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35%

가끔이라도 명상한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



BAL BAHIA의 홈 짐 겸 명상 공간 인테리어

Expert's Comment



“최근 뷰티 업계는 어려 보이기보다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얼굴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탄력과 결, 톤을 미세하게 개선하는 시술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지요. 티 나지 않게 꾸준히 관리해 매끈하고 촉촉한 세미 글로우 피부를 완성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아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어려 보이는 피부보다 정돈된 피부에 집중하세요. 피부 장벽 강화, 콜라겐 유지, 일상적인 관리가 핵심입니다.”

미파문피부과 원장 문득곤

추천 시술 리스트

1

탄력과 리프팅

두루뭉술한 얼굴선과 볼, 처진 턱살을 개선하면서 리프팅되는 울췌라 프리미엄, 슈링크 및 써마지 FLX와 볼뉴머의 인기가 높다. 효과가 누적되며 노화 속도를 늦추므로 연 1~2회 시술이 적당하다.

2

피부결, 수분, 잔주름

나이 들수록 흐트러지는 피부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리주란, 리주란 HB와 주베룩.

3

피부 재생과 톤, 민감도

자극이 적으면서도 윤기와 피부 회복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LDM. 티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품위 있어 보이는 시술이다.



HALLE BERRY



DEMI MOORE

No Filter, Real Me

몇 년 전부터 할리우드에서는 포토샵이나 보정 필터 사용을 최소화하고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할리 베리, 데미 무어, 갠 가돗, 크리스틴 벨 등은 화보와 SNS에서 필터를 거치지 않은 원래 피부를 그대로 보여주며 리얼 스킨 트렌드에 동참했다. 과장된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외모 압박, 정신 건강 문제 등이 대두되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긍정하는 흐름이 힘을 얻은 것. 완벽함보다는 진짜에서 위안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GAL GADOT



KRISTEN BELL

special





7 steps to GRACEFUL SKIN

이 겨울, 아름다운 피부를 지키는 정답은 사실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다. 유해 성분을 자극 없이 지우고, 수분과 영양을
채우고, 유해 성분이 피부에 오래 머물도록 보호하는 단계를
성실하게 밟는 것. 결국 기본만큼 강력한 공식은 없다.

editor **LEE SUNG JIN**

1

CLEANSE

잘 지우는 것은 1년 내내 중요하지만, 겨울에는 특히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핵심은 덜 빼고 더 남기는 클렌징 전략. 피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의 일부이기 때문에 건조한 계절에는 이 보호막이 쉽게 얇아진다. 불필요한 메이크업과 노폐물만 제거하고 피부의 최소 방어막은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관건이다. 또 겨울철에는 실내외 온도 차로 모공이 일시적으로 벌어질 수 있으므로 모공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자극 없는 세안으로 꼼꼼히 닦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뜨거운 물은 짧은 시간에도 피부 장벽의 지질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28~30℃의 미온수로 세안하는 것이 좋다. 세안 후 얼굴이 땅기지 않도록 보습 성분을 풍부히 함유한 클렌저를 선택하는 것 또한 필수.

아모레퍼시픽 트리트먼트 엔자임 클렌징 폼 녹차유산균 유래 효소가 모공 속 노폐물을 씻어내고 녹차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피부 장벽을 보호해준다. 쫄쫄한 거품이 일어 문지르기 쉽고, 세안 후에도 피부가 촉촉하다. 120g, 4만2천원.





2

EXFOLIATE

겨울철엔 사소한 자극에도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피부 장벽이 손상되기 쉬우므로 과한 각질 제거는 금물. 그렇다고 각질 제거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수분과 영양 흡수율이 떨어져 피부가 쉽게 거칠어진다. 따뜻한 스팀으로 각질을 살짝 불린 뒤 자극 없는 방식으로 부드럽게 제거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과정이 번거롭다면 샤워 중에 각질을 정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이후 바로 수분과 영양 공급 단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각질 제거와 보습이 동시에 가능한 하이브리드 제품이라면 더욱 효과적이다.

설화수 백삼팩 인삼 알갱이 스크럽이 피부 턴오버를 돕고, 꿀을 더한 금빛 젤 텍스처가 수분을 채워 매끈하고 촉촉한 피부로 바꿔주는 인 사워 젤 마스크. 120ml, 7만2천원.

3

HYDRATE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피부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차례다. 샤워 후 3분 이내에는 각질층이 유연해져 수분을 흡수하기 쉬운 상태이므로 이 골든 타임을 절대 놓치지 말자. 타월로 얼굴을 살짝 눌러 물기를 70% 정도만 제거한 뒤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이상적이다. 지나치게 묽은 토너는 제품에 따라 여러 번 덧바르면 오히려 수분 증발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겨울에는 점성이 적당한 있는 보습 토너가 더 효과적이다. 뜨거운 물에 샤워를 했다면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수분 손실이 빨라질 수 있으므로 세안의 마지막 단계에는 차가운 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 난방 기기 근처는 상대적으로 습도 30% 이하의 지극히 건조한 상태이므로, 가능하면 가습기 근처나 습도가 유지되는 욕실에서 스킨케어 첫 단계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Beauty Tip

겨울에 시작하기 좋은 테라피

- 1 **레티노이드 루틴** 자외선 지수가 낮고 피지와 땀 분비가 줄어드는 겨울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레티노이드 케어에 적합하다.
- 2 **고함량 비타민 C** 비타민 C는 열과 빛에 약해 산화되기 쉬운데,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 UV 지수도 낮아 안정성과 효과가 높다.
- 3 **멜라닌 타깃 케어** 멜라닌 생성과 산화가 상대적으로 억제되는 계절이라 빠른 색소 케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4 **비건 펩타이드·성장 인자 앰플** 건조할수록 유효 성분의 흡수가 빠르므로, 겨울은 규칙적인 루틴의 효과를 높이기 쉬운 계절이다.
- 5 **필링·턴오버 루틴** 피부로 염증이 생길 위험이 적고, 겨울 특유의 두꺼운 각질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TREAT

스페셜 케어의 클라이맥스, 기미, 멜라닌, 주름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춘 집중 케어 성분은 겨울이 '제철'이다. 건조한 계절에는 각질층이 얇아져 저분자·수용성 성분의 침투력이 높고, 자외선 지수가 낮은 덕분에 자극 위험도 적다. 게다가 겨울은 밤이 길고 실내 생활 빈도가 높아 피부 재생 호르몬 분비가 최대치에 이르는 밤 10시부터 2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잠들기 쉬운 계절. 이때 세포 재생과 콜라겐 합성이 활발하므로 스킨케어 효과가 극대화된다. 토너와 에센스가 완전히 마르기 전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에 유효 성분이 든 제품을 바르면 흡수력이 더욱 좋아진다. 한 번에 많이 바르기보다 소량씩 여러 번에 걸쳐 덧바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1 홀리추얼 리디파이닝 앰플

4주 프로그램 기미·멜라닌·주름을 하나의 루틴으로 관리하는 토탈 안티에이징 앰플. 항산화·미백·탄력 증진 성분에 보습 성분까지 담아 4주 만에 피부의 톤과 결을 균형 있게 정돈한다. 100ml(5ml×20개), 28만원.

2 헤라 시그니아 일루미네이팅

세럼 기미·잡티, 주름으로 인한 그늘, 노화 색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칙칙해진 피부를 케어해 이상적인 턴오버 주기를 되찾고, 28일 만에 어려 보이고 탄탄한 광채 피부로 바꿔준다. 30ml, 20만원.





5

BOOST

겨울에는 피부의 피지 분비가 감소해 눈가나 목, 손처럼 유수분 보유력이 낮은 부위에 주름이 생기기 쉽다. 특히 눈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구조가 약해 탄력 저하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곳. 찬 바람과 건조한 공기는 이 구조를 더욱 약화시켜 잔주름이 도드라지게 한다. 따라서 겨울의 스킨케어 루틴에서 아이크림은 무척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아이크림은 눈썹 앞머리부터 관자놀이, 눈 밑 골격을 따라 넓게 둥글게 연결해 바른다. 이때 가볍게 두드려 순환을 돕는 것이 좋다.

1 홀리추얼 울트라 너리싱

어드밴스드 아이크림

홀리추얼만의 탄력 시너지 콤플렉스 Lift-PLA™가 눈가 피부의 밀도를 높여 탄탄하고 또렷한 인상으로 가꿔준다. 주름·탄력·아이백·기미·처진 눈꺼풀까지 케어하는 고기능 아이크림. 30ml, 9만8천원.

2 설화수 진설 아이크림

피부 속 깊은 곳으로부터 무너진 눈가 탄력을 끌어올리고 노화로 깊어진 눈가 주름을 케어하여 리모델링한 듯 입체적인 눈가 피부 탄력을 되찾는다. 20ml, 27만원.





SEAL

앞서 피부에 바른 유효 성분을 지질 기반 크림으로 봉인하는 단계. 세라마이드·콜레스테롤·지방산 같은 장벽 지질을 이상적인 비율로 배합한 크림을 바르면 레티노이드·펩타이드·비타민 C 등 피부 속에 흡수된 유효 성분을 효율적으로 붙잡아둔다. 장벽이 탄탄히 형성되면 낮 동안 TEWL(수분 증발)을 최소화해 피부가 하루 종일 촉촉하게 유지되고, 밤에는 세포 재생 및 콜라겐 합성과 항산화 반응이 최적의 환경에서 왕성하게 일어난다.



Beauty Tip

TEWL(TransEpidermal Water Loss, 수분 증발) 줄이는 방법

이상적인 각질층의 지질 구조는 세라마이드 50%, 콜레스테롤 25%, 지방산 15%로, 이 비율에 가까울수록 수분 손실이 적기 때문에 이와 유사하게 배합된 제품이 가장 효율적이다. 바셀린, 미네랄 오일, 스쿠알렌, 시어버터처럼 수분 증발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오클루시브(occlusive) 성분도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히알루론산은 공기 중 습도가 낮을 때 오히려 피부 속 수분을 끌어올려 TEWL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지질 크림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HERA

UV
PROTECTOR
SPF 50+ / PA++++

TONE-UP

LAVENDER

UVA UVB
BLUELIGHT*
COLOR CORR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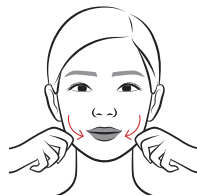
PROTECT

겨울이라 자외선 차단제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잔주름과 탄력 저하의 원인인 UVA는 연중 약 95% 수준을 유지하는데, 겨울은 오히려 UVB가 줄어들어 UVA 비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피부 노화 리스크가 커진다. 또한 태양의 고도가 낮아 자외선이 비스듬히 들어오면서 UVA 투과율이 더 높아지고, 하얀 눈은 자외선 반사율이 80~90%에 달해 눈이 오는 날이나 스키장에 가는 날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내에서도 블루라이트와 근적외선이 색소침착이나 세포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집에 있는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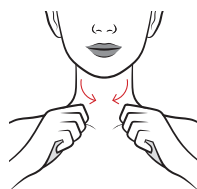
헤라 UV 프로텍터 톤업 라벤더 SPF50+/PA++++ 은은한 라벤더 빛으로 노란 기와 붉은 기를 정돈해 피부 본연의 빛을 끌어올리는 청량 톤 업 자차. 50ml, 4만7천원(2026년 2월 출시 예정).

Beauty Tip

맑은 얼굴을 위한 브라이트닝 순환 마사지



1 양손 모두 주먹을 쥐고 검지와 중지를 살짝 세워 양쪽 귀 밑에 붙인 뒤 반원을 그리며 턱으로 내려간다.



2 양손을 ①과 같이 쥐고 양쪽 목선을 따라 내려가며 쇄골도 같은 방식으로 마사지한다.



3 양손을 손가락을 붙여 편 채 검지, 중지, 약지를 관자놀이에 대고 바깥쪽으로 반원을 그리며 마사지한다.



4 양손을 ①과 같이 쥐고 턱에서 양쪽 입꼬리 쪽으로 마사지한다.



5 한 손 엄지와 약지로 고개를 옆으로 돌렸을 때 튀어나오는 부위에서 턱 밑까지 꼬집듯 마사지한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한다.

special product

Beauty Science

철저한 계산과 집요한 연구 끝에
탄생한 뷰티 과학의 정수.
데이터와 기술로 증명된
안티에이징의 명확한 해답을
투명한 실험실에서 마주하다.

editor **CHOI HYANG JIN**



#콜라겐세럼

#탄력마사지세럼

“쫘득한 금빛 텍스처가
일품이다. 밤 시간대 팔사와
함께 활용하면 마사지를
보다 부드럽게 도와주며,
다음 날 아침 쫘뽕하고
촉촉하게 정돈된 피부를
마주할 수 있다. 최고의
홈 에스테틱 파트너.”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성진

HOLITUAL

에스테틱의 정교한 테크닉을 단 한 병에 담았다. 저분자 콜라겐과 펩타이드가 피부 사이사이를 촘촘하게 채워 탄력을 높여주는 동시에 금 성분을 함유한 골든 젤 텍스처가 빛을 잃은 피부에 즉각 윤기를 부여한다. 특히 팔사나 뷰티 디바이스와 함께 사용하면 보다 부드럽게 마사지를 도와주는 포물러로, 4주간 꾸준히 바르면 얼굴의 부기가 내리고 탄력이 올라붙는 효과*를 입증했다.

홀리추얼 코어 리프트 액티베이팅 세럼. 140ml, 10만5천원.

#녹차의유산

#애플루티

“녹차의 생명력을 과학으로
정제해낸 느낌. 세럼이
피부 깊숙이 ‘꽃히듯’ 흡수되면
크림이 부드러운 실크처럼
감싸안는다. 함께 사용했을 때
느껴지는 윤기와 밀도감은
차원이 다르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윤휘진



AMORE PACIFIC

아모레퍼시픽이 오랜 연구 끝에 탄생시킨 독자적 차(茶) 품종인 장원3호™에서 듀얼 인퓨전™ 기술로 추출한 핵심 성분인 애플루티™가 피부의 시간을 되돌린다. 여기에 고귀한 첫물 녹차와 녹차꽃 에센셜 오일이 더해져 무너진 보습 장벽을 다시 세우고 탄력 인자를 깨운다. 특히 고압 유화 기술로 유효 성분을 미세하게 쪼개 흡수율을 극대화한 세럼과 피부 온도에 녹아 스며드는 크림의 레이어링은 빈틈없는 토털 안티에이징을 완성한다.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리저브 세럼. 30ml, 57만원. + 타임 레스폰스 스킨리저브 크림. 50ml, 50만원.



#화이트까멜리아EXO™

#피부리페어×3배

#유스 콜라겐

“영양이 꽉 찬 듯 쫄득한
제형이 자석처럼
밀착된다. 바르자마자
피부를 탄탄하게 조여
리프팅해주는 듯하며,
건조하던 피부 속이 수분과
영양으로 꽉 채워진 듯하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윤희진

HERA

무너진 피부 각도를 바로 세워 리모델링한 듯 입체적인 얼굴선을 완성하는 파워 리페어 세럼. 핵심 성분인 화이트 까멜리아EXO™가 피부 본연의 리페어 속도를 3배 더 빠르게 끌어올려 잠들어 있던 피부의 활력을 깨운다. 특히 독자적인 3단계 프리즘 리페어 기술이 적용되어 피부 속 유스 콜라겐(Youth Collagen) 생성을 유도해 밀도와 투명함을 동시에 개선한다.

헤라 시그니아 코어 리프팅 세럼 기프트 세트. 24만원.

#피부회복탄력성

#만점크림

#7가지심층리페어

“피부에 부드러운 보호막을 씌운 듯 편안하다.
유분이 겹도는 느낌 없이 쫄득하게
밀착해 세안할 때 손끝에서 느껴지는
매끄러운 피부결에 감동했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최향진



HERA

손상된 피부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고밀도 리페어 크림. 화이트 까멜리아EXO™와 까멜리아PDRN의 시너지가 주름, 탄력, 결, 광채 등 다섯 가지 가속 노화 징후를 개선하고, 일곱 가지 심층 리페어 효과를 선사한다. 피부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밴디지 텍스처를 적용해 바르는 순간 피부에 보호막을 씌운 듯 편안하고 견고한 탄력감을 부여한다.

헤라 시그니아 바이탈 리프팅 크림 기프트 세트, 32만원.

#피부뼈관절건강까지

#하루한병간편케어

“피부 건강은 물론 뼈와
관절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맞춤 배합에 반했다.
하루 앰플 한 병으로
피부보습은 물론, 뼈관절
건강까지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최향진



VITAL BEAUTIE

피부를 넘어 뼈와 관절의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 바이탈뷰티의 슈퍼콜라겐 골드는 AP콜라겐효소분해펩타이드 1,000mg에
관절 윤활액의 핵심 성분인 NAG(N-아세틸글루코사민)와 뼈 형성에 필요한 망간을 주원료로 배합했다. 이 맞춤 배합은
탄탄하게 채우는 근본적인 피부 변화는 물론, 관절과 연골, 뼈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다.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골드. 25ml×30앰플, 14만원.

#기미잡티집중케어

#백옥앰플

“실키한 텍스처에 반했다.
끈적임이나 밀림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되어
여러 번 레이어링
하기에도 부담이 없으며,
마사지하듯 흡수시키면
속부터 차오르는
쫀쫀한 고밀도 광채를
느낄 수 있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기지혜

HOLITUAL

그늘 없이 맑고 깨끗한 피부를 선사하는 바르는 백옥 앰플 프로그램. 4주 프로그램에 맞춘 밀도 높은 케어로 오래된 기미부터 멜라닌, 주름 고민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토탈 안티에이징 앰플이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에 미백 및 탄력 효능 성분과 수분까지 더해 확실한 톤&결 안티에이징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준다.

홀리추얼 리디파이닝 앰플 4주 프로그램, 5ml × 20앰플, 28만원.

special makeup

Scene-Stealer

시간과 장소, 상황에 따라 옷을
갈아입듯 메이크업도
TPO에 따라 달라야 한다.
분주한 오피스부터 화려한
파티, 격식을 차려야 하는
모임까지. 당신의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세 가지
뷰티 코드.

editor **CHOI HYANG JIN,**
GO HEE SOO



Classic Formal

#FORMAL_LOOK

하객으로 초대받은 결혼식이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등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는 우아함이 무기가 된다. 튀는 컬러는 배제하고 부드러운 피치와 코랄 브라운 톤을 톤온톤으로 매치해 고급스럽고 기품 있는 아우라를 완성하자.



STEP 1

헤라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쿠션을 두드려 발라 매끄러운 결을 살린다. 양 볼의 광대뼈 앞쪽에는 헤라 리플렉션 리퀴드 블러쉬 #227 돌리피치를 수채화처럼 그레데이션으로 바른다.



STEP 2

헤라 리플렉션 리퀴드 블러쉬 #227 돌리피치를 베이스로 얇게 깬다. 그 위에 헤라 퀴드 아이 컬러 #01 시에나 코랄의 코랄 브라운 컬러로 눈두덩이와 언더 아이래시 라인에 음영을 준다.



STEP 3

헤라 센슈얼 틴티드 샤인 립세럼 #450 브라운 슈가를 입술에 짝 차게 바른다. 투명한 광택과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가 어우러져 전체적인 룩에 우아한 무게감을 실어준다.



- 1 헤라 리플렉션 리퀴드 블러쉬 #227 돌리피치.**
7.5g, 4만7천원
(26년 2월 출시 예정).
- 2 헤라 센슈얼 틴티드 샤인 립세럼 #450 브라운 슈가.**
8.5g, 4만원.
- 3 헤라 퀴드 아이 컬러 #01 시에나 코랄.**
9g, 6만9천원.

Dazzling Night

#FESTIVE_LOOK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페스티벌이나 파티에서는 과한 색조보다는 빛을 머금은 듯 투명하게 반짝이는 '광감'으로 시선을 사로잡아야 한다.
이마와 콧대, 양 볼에 흐르는 매끄러운 윤광과 신비로운 라벤더 컬러 아이 메이크업으로 몽환적인 밤의 주인공이 되어볼 것



STEP 1

헤라 부스팅 베이스 UV 프로텍터로 피부 톤을 화사하게 보정한 뒤, 헤라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브러시로 얇게 펴 발라 매끄러운 광채를 연출한다.



STEP 2

눈가에는 헤라 퀴드 아이 컬러 #04 라벤더문을 바른다. 시مر한 펄 아이섀도를 눈두덩이와 언더 아이래시 라인에 톡톡 얹어 신비로운 보랏빛 뉘앙스를 입힌다.



STEP 3

입술은 자연스럽게 마무리한다. 채도가 낮은 차분한 코랄 베이지 톤인 헤라 센슈얼 틴티드 샤인 립세럼 #220 선데이즈를 입술 전체에 맑게 채워 바른다.



1 헤라 퀴드 아이 컬러 섀도우 #04 라벤더문. 9g, 6만9천원.
2 헤라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 SPF15/PA++. 30g, 7만2천원. **3** 헤라 센슈얼 틴티드 샤인 립세럼 #220 선데이즈. 8.5g, 4만원.





Urban Professional

#DAILY_OFFICE_LOOK

도심 속 오피스에서는 과한 색조보다는 피부 본연의 결을 살린 세미 매트 스킨과 시크한 그레이 음영으로 지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조한 사무실에서도 오랜 시간 지워지지 않는 탄탄한 베이스와 과하지 않은 광택이 도는 입술로 프로다운 무드를 완성해보자.



STEP 1

헤라 부스팅 베이스 UV 프로텍터와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깨끗한 베이스를 완성하고, 헤라 리플렉션 리퀴드 블러쉬 #183 로지를 은은하게 퍼뜨리며 발라 화사하게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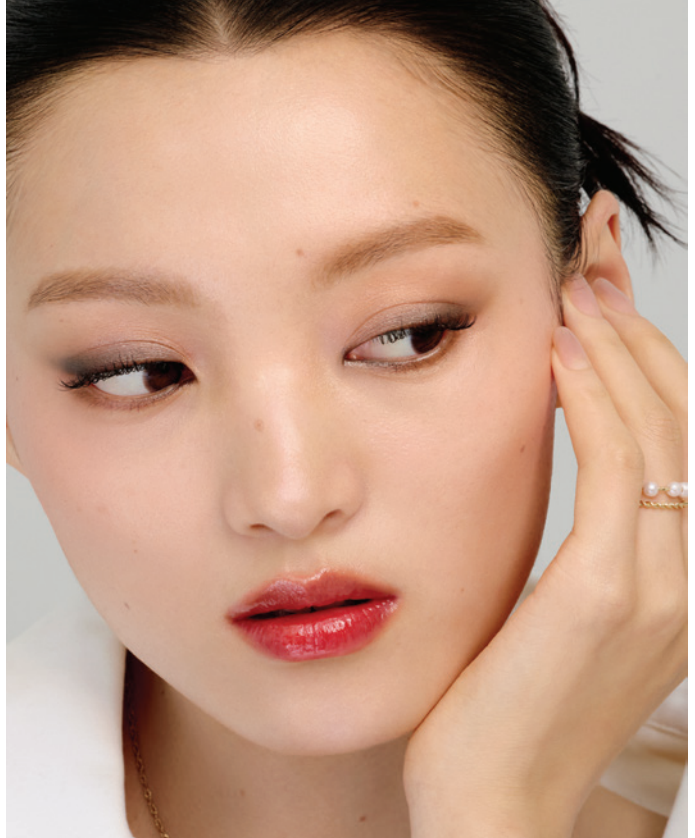
STEP 2

눈가는 헤라 퀴드 아이 컬러 #03 누디 토프의 차분한 그레이 아이세도를 활용해 시크한 분위기를 낸다. 선명한 블랙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꼼꼼히 채워 또렷한 눈매를 연출한다.



STEP 3

입술에는 헤라 센슈얼 틴티드 샤인 립세럼 #323 체리온탑을 바른다. 립세럼 특유의 편안한 보습감으로 입술을 감싸면서 맑은 광택과 생기 넘치는 컬러가 안색을 환하게 밝혀준다.



- 1 헤라 부스팅 베이스**
UV 프로텍터 SPF15.
35ml, 5만8천원.
- 2 헤라 리플렉션**
리퀴드 블러쉬 #183
로지. 75g, 4만7천원
(26년 2월 출시 예정).
- 3 헤라 센슈얼 틴티드**
샤인 립세럼
#323 체리온탑.
8.5g, 4만원.

issue

2026 Beauty Briefing

뷰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뉴 트렌드 키워드 10.

editor **LEE SUNG JIN**

Archiving file - A

PROJECT

REMIND : GRACEFULLY

NO. 1052

CONFIDENTIAL:TREND NOTES

PROJECT

PERIOD

NAME

etc.

Remind:

Timelers Retail

Top Secret

Bio-active Barrier Care

스스로 힘을 키우는 살아있는 장벽

최근 스킨케어 연구의 중심에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 미생물이 지질층, 면역 기능, 항균 펩타이드 생성 등에 관여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로 뒷받침되어왔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이크로바이옴과 피부 세포가 주고받는 신호, 바이오 활성 단백질, 재생 신호 전달체 같은 바이오액티브 요소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피부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 이제 스킨케어는 바이오 공학을 기반으로 한 능동적 장벽 케어의 시대로 진입했다.

Sustainable Luxury

지속 가능성이 곧 새로운 럭셔리

이제 럭셔리는 포장지나 가격만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가치와 윤리, 미래 지향성을 기준으로 진정한 럭셔리를 판단하며, 지속 가능 제품에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가 꽤 많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운영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8.9% 줄이고, 2050년까지 넷제로(인간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완전히 없애는 개념)를 달성할 계획이다.



설화수 진설크림

리필 제품 이용 시 본품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대 52% 줄일 수 있다. 60ml, 52만원.



Skin Longevity

건강한 상태가 오래 유지되는 피부

팬데믹 이후 '롱제비티(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뷰티 업계에도 '스킨 롱제비티' 개념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이는 단기간의 미용적 개선을 넘어서 피부가 오랫동안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근본적인 체력을 키우는 접근으로, 항산화와 펩타이드, 콜라겐 자극 기술뿐만 아니라 생체리듬 최적화, 장벽, 면역 시스템 전반을 다루는 연구가 결합된 형태다. 많은 기업이 분자와 세포 수준의 노화 원인을 분석해 노화를 예방하거나 늦추는 데 필요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스킨케어가 단순히 피부 표면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전체적인 건강과 라이프스타일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뷰티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제 스킨케어는 '장기 컨디션 관리'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Gray Hair Aesthe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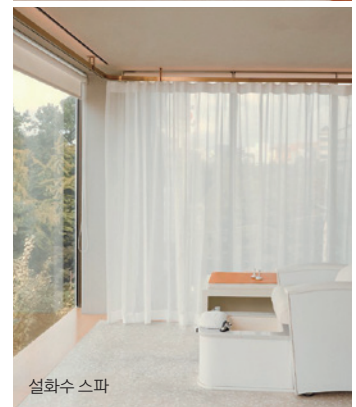
은빛 머리의 품격

2025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그레이 헤어로 등장해 사람들의 찬사를 이끌어낸 셀마 헤이엑. 그를 비롯해 은발을 숨기지 않는 할리우드 셀러브리티들의 움직임과 SNS에서 #goinggray라는 해시태그의 유행은 그레이 헤어를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가 아니라 스타일과 연륜, 정체성의 표현으로 재해석하게 했다. 스모키 실버, 애시 그레이, 그레이 블렌딩 등 다양한 그레이 톤 염색이 트렌드가 된 양상 역시 하얗게 센 머리에 대한 시선이 달라진 것을 드러낸다. 고잉 그레이 트렌드에 합류하려면 하이라이트나 로라이트 염색을 해 전반적인 톤을 그레이로 정돈하는 것이 시작이다. 여기에 세련된 커트와 트리트먼트로 완성한 윤기 나는 스타일링까지 더하면 새치가 많은 머리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Slow Beauty Ritual

느림의 미학

뷰티는 지금 단순히 빠른 효과를 쫓는 소비를 넘어, 스스로를 돌보는 의식적 자기 돌봄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계절과 피부의 리듬에 맞춰 루틴을 조정하고, 향·온도·촉감 등 감각적 요소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는 의식적 스킨케어 리추얼이 주목받는 중이다. 스킨케어의 각 단계는 해치워야 할 숙제가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일상이 된다. 피부를 단기적으로 맑게 만드는 제품보다 장기적으로 수분·유수분 균형과 장벽 건강을 개선해주는 포물러가 각광받는 것도 느림의 미학을 쫓는 이들이 늘어난 세대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 콘셉트에 잘 맞는 곳 중 하나가 설화수 스파다. 손으로 하는 마사지, 감성 리추얼을 통해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곳으로,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오감을 통한 자기 돌봄의 경험을 제공한다.



설화수 스파

Smart Personalization

똑똑한 피부 주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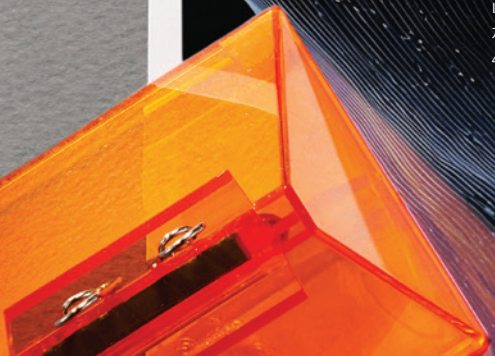
홈 케어 디바이스의 대중화에 AI가 더해져 '초개인화 스킨케어' 시대가 열렸다. 기술의 발전은 눈부시다. 모공 크기, 색소 농도 같은 기본 지표는 물론, 스마트폰 셀피만으로 피부 속 수분 상태와 장벽 건강을 예측하고, 피부 표면을 3D로 재구성해 주름 깊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빠르고 정밀하게 파악한 피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LED 광선 테라피와 피부 수분 측정 같은 맞춤형 케어를 적용하면 집에서도 매일 저녁 전문가가 제공하는 수준의 스킨케어를 할 수 있다.

Make On Skin Light Therapy 3s

- ✓ Boosting
- ✓ Double Toning
- ✓ Relaxing Up
- ✓ Contouring
- ✓ Soft Retinol (APP ONLY)



메이크온
스킨 라이트 테라피 3S
3초만에 피부를
진단해서, 그날의
내 피부에 맞는 케어를
제공하는 뷰티디바이스.
47만5천원.



It feels like a quiet
kind of renewal.
And the... ↘



PDRN Innovation

기적의 재생 성분

PDRN(Poly Deoxy Ribo Nucleotide)은 섬유아세포 증식을 촉진하고, 조직 재생과 항염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의료 분야에서 널리 쓰이다 최근엔 미용 분야로 그 쓰임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과거에는 연어 유래 원료의 조달을 둘러싼 윤리 문제가 있었지만, 동물 의존도를 낮춘 차세대 PDRN 기술의 등장으로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지는 중이다. 단순히 인기가 급상승한 성분이 아니라 에스테틱급 재생력과 홈 케어의 편의성을 모두 기대할 수 있는 차세대 스킨케어 유망주다.

홀리추얼 블루 PDRN 더블 앰플

피부 노화 노폐물*을 정돈하는 식물 유래 효소를 고농도로 담은 1제와 미세 조류에서 추출해 재생·탄력 효능이 뛰어난 Blue PDRN™을 담은 2제를 한 번에 사용해 매끈하게 빛나는 피부로 가꿔주는 노화 흔적** 리페어 앰플, 45ml, 9만5천원.

*노화에 따라 축적되는 각질 등의 노폐물.
**탄력, 장벽 저하 등의 노화 징후.

Neuro-calming Beauty

생각이 곧 아름다움이다

사랑하면(행복하면) 예뻐진다는 말은 사실이다. 피부는 단순한 보호막이 아니라 감각 수용체, 신경 말단, 면역 세포가 결합된 복합 기관으로 뇌와 상호작용을 한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정서적 피로가 피부 염증과 피부 장벽 약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로 증명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뉴로 코스메틱'은 정서 안정에 초점을 맞춘 성분과 아로마, 감각적 제형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피로 해소까지 연결하는 제품군을 제안한다. 즉 마음 관리가 곧 피부 관리가 되는 셈이다.

Climate Adaptive Skincare

오늘의 피부도 맑음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피부가 일상적으로 받는 환경 스트레스가 다양해지면서 단순 보습과 자외선 차단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도래했다. 지금은 자외선·적외선·블루라이트 차단, 미세먼지·오염물질 방어, 실내외 온습도 대응 등 환경 변수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기후 반응형 스킨케어가 주목받고 있다. 사용자의 활동량이나 일정, 날씨에 맞춰 루틴을 바꾸는 상황 기반 케어와 환경에 맞춰 질감이 변하는 트랜스포밍 텍스처도 이 카테고리에 포함된다.



Texture Technology

손끝으로 느끼는 아름다움

화장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감각'의 중요성이 커지며 텍스처가 제품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됐다. 여름엔 산뜻한 젤, 겨울엔 꾸덕꾸덕하고 리치한 크림처럼 계절과 피부 컨디션에 맞춘 선택이 자연스러워졌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포뮬러, 입자가 터지며 수분을 방출하는 버스트 텍스처, 오일에서 세럼으로 변하는 트랜스포밍 제형 등은 경험 자체를 즐겁게 만든다. 감각적 요소가 소비자 만족도와 재구매 의사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용자가 느끼는 촉감이 곧 제품의 가치로 직결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실제로 많은 브랜드가 향, 질감, 온도 등 다양한 감각 경험을 강화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소비자가 직접 체험하고 선택할 수 있는 감각 중심 스킨케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4주 만에 완성하는 생명력 넘치는 피부

'스킨 통제비티'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설화수에서
피부의 회복 시스템을 활성화해 입체적인 윤곽과 광채 피부를 완성하는
체계적인 4주 집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editor **CHOI HYANG JIN**

설화수 진설 인퓨전 트리트먼트

진정한 안티에이징은 멈춰버린 피부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설화수의 진설 인퓨전 트리트먼트는 느려진 피부 턴오버 주기를 깨어하고 회복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4주 집중 프로그램이다. 핵심은 1주 간격으로 설계된 체계적인 4단계 메커니즘. 1주 차에는 백삼 엔자임TM이 노화된 각질을 정화해 투명한 바탕을 다지고, 2주 차에는 진세노믹스TM와 레티놀 캡슐이 피부 속 탄력 구조를 활성화한다. 이어지는 3주 차에는 진생베리SRTM이 노화된 피부를 리프로그래밍해 입체적인 탄력 피부를 완성하며, 마지막 4주 차에는 진생 올레오솜TM이 피부층을 견고하게하여 효과를 지속시킨다. 특히 매주 피부 상태에 맞춰 섬세하게 설계한 네 가지 텍스처가 관리의 완성도를 높여주며,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도 개선된 탄력과 광채가 오래도록 유지되는 놀라운 생명력을 부여한다. 단 4주 만에 리모델링한 듯 다시 태어난 피부를 약속하는 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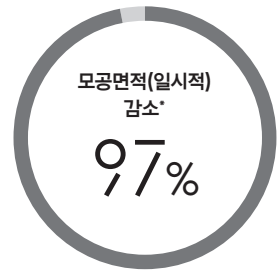
*임상기관 : 글로벌 의학 연구 센터, 연구 기간 : 2024년 10월 8일~12월 10일, 시험 대상 : 35~60세 여성 34명, 피시험자 개선을 기준



설화수
진설 인퓨전 트리트먼트.
15ml×4, 68만원.



개선피험자율



“설화수의 기술력을 느낄 수 있는 제품. 1주 차에는 피부 결이 매끄러워지고, 2~3주 차를 지나며 얼굴선이 정돈되는 것이 눈에 보인다. 4주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피부 속부터 탱탱한 힘과 고급스러운 윤기가 차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성진

에스테틱의 재생 공식을 담다

홀리추얼이 에스테틱 관리의 핵심인 '턴오버 케어'와
'리페어 케어'를 단 한 병에 담았다.

노화로 남은 흔적을 부드럽게 정돈하고,
그 자리를 강력한 리페어 에너지로 채우는
홀 에스테틱의 새로운 기준.

editor **CHOI HYANG JIN**



홀리추얼
블루 PDRN
더블 앰플.
45ml, 9만5천원.



홀리추얼 블루 PDRN 더블 앰플

전문적인 피부 관리의 시작은 언제나 비움이다.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정리해야 유효 성분이 피부 속 깊이 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홀리추얼 블루 PDRN 더블 앰플은 이 과정을 혁신적인 듀얼 포뮬러, 1제와 2제로 완벽하게 구현했다. 먼저 1제의 고농도 효소(프로테아제, Protease)가 길을 연다. 아모레퍼시픽 특허 성분인 식물 유래 프로테아제가 노화로 쌓인 각질과 노폐물을 자극 없이 정돈하며 흐트러진 턴오버 주기를 회복시킨다. 깨끗하게 비워진 피부 틈으로 2제의 Blue PDRN™이 침투한다. 고농축 PDRN과 블루 펩타이드, 콜라겐으로 구성된 독자 성분이 피부를 리페어하고 탄력, 진정, 장벽 강화까지 케어한다. 2제 기준 51.7%의 고함량이 핵심이다. 바르기만 해도 전문적인 턴오버 케어와 리페어 케어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피부 재생이 활발한 밤 시간에 디바이스와 함께 사용하면 에스테틱에서 관리 받은 듯 투명하고 매끈한 결광을 완성할 수 있다.

“자극적인 필링 없이도 피부가
놀랍도록 매끄러워진다.
효소가 묵은 각질을 녹여내면
고농축 PDRN이 그 자리를
쫓득하게 채우는 느낌. 다음 날
아침 세안할 때 손끝에 닿는
피부결이 확실히 다르다.”

〈뷰티블〉 에디터 고희수

Point
1

에스테틱 프로그램을
앰플 단 한병에

Point
2

혁신적인 듀얼 포뮬러
시너지

Point
3

고농도 효소의
피부 턴오버 개선

Point
4

Blue PDRN™의 강력한
노화 흔적* 리페어

*탄력, 장벽 저하 등의 노화 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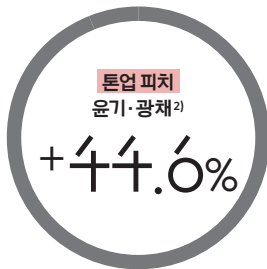
피부 톤을 디자인하는 광노화 방패

단순히 차단을 넘어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광노화까지 막아내는
헤라의 독보적 기술력. 여기에 피부 톤을 가장 아름답게 보정할 수 있는
라벤더와 피치 컬러를 더해 방어와 보정을 동시에 해내는
완벽한 스킨 쉴드 시스템을 완성했다.

editor **CHOI HYANG JIN**

“선크림 하나 발랐을 뿐인데
피부가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듣는다.
얼굴이 유난히 칙칙하고 노랗게
뜬 날에는 라벤더가, 피곤해 보여
생기가 필요한 날에는 피치가 정답.
파운데이션 없이도 맑고 우아한
피부로 연출할 수 있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성진



헤라 UV 프로텍터 톤업 SPF50+/PA++++

헤라의 UV 프로텍터 톤업이 또 한 번 진화했다. 이 제품의 핵심은 광노화 케어에 있다. 헤라의 독자 기술인 UV-R PRO™를 적용해 노화를 유발하는 UVA까지 강력하게 차단하기 때문. 여기에 자외선, 블루라이트, 미세먼지, 적외선 등 도시의 5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5-디펜스 시스템(5-Defense System)은 피부를 위한 완벽한 방패가 되어준다.

이번 리뉴얼의 백미는 바로 컬러다. 새롭게 선보이는 라벤더는 동양인 특유의 노란 피부 톤을 보정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칙칙하고 누렇게 뜬 피부의 노란기를 중화해 마치 피부 속에 조명을 켜 듯 투명하고 깨끗한 쿨 톤 피부를 연출해준다. 반면 피치는 생기 없이 창백하거나 푸른 기가 도는 피부에 자연스러운 혈색을 불어넣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워밍 톤의 생기를 완성한다. 헤라 UV 프로텍터 톤업 라인은 바르는 즉시 피부를 맑게 밝혀주는 피치 톤업 효과는 물론, 멜라솔브 성분을 더해¹⁾ 4주 사용 시 멜라닌 감소(-8.29%)와 기미·잡티 개선(-14.4%)을 확인한 이중 브라이팅 기능을 선사한다.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의 장점을 동시에 담은 이 라인은 자연스럽게 화사한 피부 표현을 연출하며, 데일리 베이스 루틴에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낸다.

1) 4주 사용 기기 측정 결과 / 만 35세~55세 여성 30명 대상 / 기관: P&K피부임상연구센터 / 시험기간: 2023년 10월 4일~11월 7일. 2) 4주 사용 자가스코어링 개선 차이값 / 만 35세~55세 여성 30명 대상 / 기관: P&K피부임상연구센터 / 시험기간: 2023년 10월 4일~11월 7일. 3) 사용 직후 기기 측정 결과 / 시험 대상: 26 ~ 50세 여성 32명 / 기간: 2025년 9월 22일~10월 24일 / 기관: (주)엘리트 4) 사용 12시간 후 자가스코어링 개선 차이값



헤라
UV 프로텍터 톤업 피치
SPF50+/PA++++, UV
프로텍터 톤업 라벤더
SPF50+/PA++++,
각각 50ml, 4만7천원
(2026년 2월 출시 예정).

A-ditor's Pick

좋은 건 다 있는 에딧샵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은 무엇일까? 에디터가 강력히 추천하고 고객들이 특히 좋아하는 제품 5개를 공개한다.

editor **LEE SUNG JIN**



인간 에너지 부스터
A-ditor 한**

바이탈뷰티 비타클렌즈

유난히 덥고 추웠던 지난해에 추천할 때마다 칭찬받은 제품이에요. 프로바이오틱스 10종과 프리바이오틱스 3종, 에너지를 급속히 충전해주는 L-아르기닌과 비타민 B군 8종에 각종 미네랄과 식물성 DHA 유지까지 모두 들어 있어 아침에 물에 타서 마시면 간편하게 하루 활력을 챙길 수 있어요.

171g(5.7g×30포), 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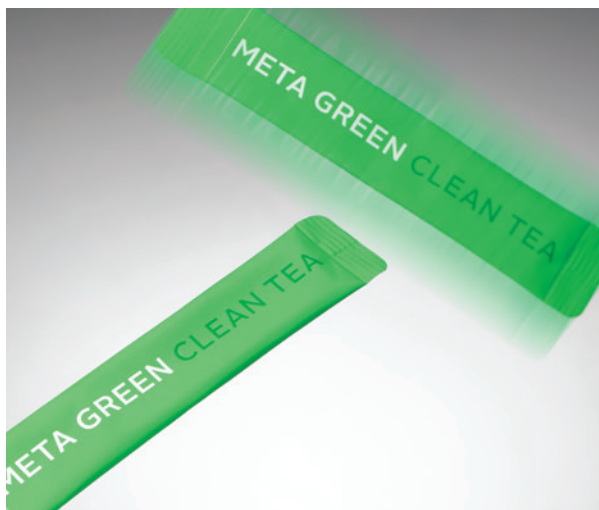



잘 먹고 예뻐지자
A-ditor 김**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효소

메타그린의 식이 관리 노하우를 집약한 100% 생균 발효 프리미엄 효소예요. 세계 최초 특허 성분인 GTB1을 포함해 6종의 유산균과 효소와 시너지 역할을 위해 엄선한 효모, 비타민, 미네랄에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메타프로효소포몰라™까지! 불균형한 대사 리듬을 바로잡고 단백질의 효율적 흡수를 도와주는, 확신의 재구매 아이템입니다.

90g(3g×30포), 4만6천원.




 붓는 자들이여, 다 내게로
A-ditor 박**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클린티

물, 전해질 균형에 필요한 칼륨과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인 브로멜라인에 하루를 산뜻하게 시작하도록 도와줄 시너지 원료를 배합해 하루를 가뿐하게 해주는 클린 티예요. 매일 아침 몸이 무겁고 속이 좋지 않다는 분에게 권했는데, 시원한 물에 타 먹었더니 하루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걸 제가 바짝 관리할 때 꼭 챙겨 먹은 제품이에요.

29g(2.9g×10포), 2만5천원.


 대한민국 학생들 파이팅
A-ditor 장**

바이탈뷰티 에너지샷 바디 앤 브레인

공부는 체력이 반, 기억력이 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제품은 에너지 충전을 위한 비타민 B군,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비타민 C와 아연, 그리고 기억력 개선 기능성 원료인 열차리독차추출물까지 더해 공부하는 학생에게 최고의 조력자예요. 그러니 재구매율 1위*를 차지한 것 아니겠어요. 이 제품을 꾸준히 챙겨 먹은 덕분에 원하던 결과를 얻었다는 감사 인사도 꽤 받았답니다.

826g[(29.5g(액상 28g + 정제 750mg×2정)×28개), 13만6천원.



 다이어트 고민물
A-ditor 기**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부스터샷

다이어트의 최대 고비가 바로 정체기죠. 그때 이걸 먹어보세요. 녹차추출물로 한 번, APIC대두배아 열수추출물 등 복합물로 또 한 번 체지방을 덜어내고, 비타민 B₆으로 에너지를 더하며 판토텐산으로 탄단지 대사를 촉진해 정체기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허리 라인과 배가 달라지는 게 보이니까 빠뜨릴 수 없죠.

188.79g(26.97g×7개), 2만8천원.

hair

두피와 모발 케어도 과학입니다

스킨케어의 정밀성이 두피와 모발로 향하며 두피의 생태 메커니즘을 다루는 수준에 이르렀다. 근본적인 두피 환경을 개선하는 헤어 웰니스 트렌드를 소개한다.

editor **LEE SUNG JIN**



왼쪽부터 |

프리메라 그린티 스칼프 쿨링 인텐시브 헤어 팩. 150ml, 3만원.

프리메라 그린티 스칼프 쿨링 인텐시브 샴푸. 380ml, 3만7천원.



Scalp Myths vs. Facts

두피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하루에 한 번 머리를 감아야 한다. ✕

과도한 세정은 피지 보호막을 손상시켜 건조, 가려움, 각질을 유발한다. 지성 두피는 매일, 건성이나 민감성 두피라면 2~3일에 한 번 감으면 충분하다.

샴푸 전 빗질을 하면 도움이 된다. ○

샴푸 전 1~2분간 빗질을 하면 먼지와 각질이 떨어져나가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모발 뿌리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

정수리 냄새는 샴푸를 바꾸면 나아진다. ✕

두피의 피지와 세균, 땀이 합쳐져 나는 냄새이기 때문에 두피 타입에 맞는 제품을 골라 마사지하며 샴푸를 하고 충분히 헹구는 것이 중요하다.

탈모는 이제 일부 사람들의 고민이 아니라 거의 범국민적 관심사에 가깝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2024년에 탈모로 병원을 찾은 이들은 5년 전보다 2.7% 늘었고, 이 중 20~30대가 무려 37.6%를 차지한다. 국내 탈모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45%를 넘어섰을 것이라는 추정치도 나오는 점으로 보아 탈모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의 숙제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요즘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는 두피 스킨피케이션(Scalp Skinification)이다. 두피도 얼굴 피부처럼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야 한다는 개념으로, 단순히 각질 제거나 탈모 예방을 넘어 두피의 미세 환경까지 정교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것. 스킨케어에 사용하던 최신 기술이 이제 두피로 확장되고 있다.

두피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두피 스킨피케이션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두피 속 유익균의 균형을 관리해 트러블이나 냄새를 없애는 마이크로바이옴 케어, 둘째 모근 주변의 혈류 흐름을 개선해 탈모 완화에 도움을 주는 마이크로 서큐레이션, 셋째 두피 장벽을 강화해 민감성 두피나 두피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마이크로 배리어, 넷째 모공 속 미세 먼지까지 정화하는 마이크로 클렌징이다. 이들은 최근 스트레스나 염증, 미생물 변화가 두피 상태와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점점 설득력을 얻는 중이다. 건강한 두피 환경은 모발에도 영향을 주어 볼륨과 탄력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두피 스킨피케이션은 모발의 문제까지 고루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인 셈이다.

두피와 모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관련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고, 탈모와 모발 건강 개선 기능성 제품이 쏟아져 나오긴 하지만, 두피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제품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프리메라의 그린티 스칼프 쿨링 인텐시브 샴푸는 두피 장벽을 다져 트러블을 예방하고, 두피 모근을 강화하는 카페인과 녹차 추출물로 탈모를 유발하는 열 자극을 진정시키며 두피에 활력을 더하는 제품이다. 코코넛 유래 계면활성제로 거품을 풍성하게 일어 미세 먼지나 유분까지 산뜻하게 씻어낼 수 있다. 함께 선회하는 그린티 스칼프 쿨링 인텐시브 헤어 팩 역시 두피 장벽과 모발 탄력을 동시에 강화해 근본적으로 힘을 잃지 않는 모발로 가꿔준다.

Trust Me!

인플루언서 5명이 홀리추얼 울트라
너리싱 어드밴스드 아이 크림을
써본 뒤 솔직한 소감을 들려줬다.

editor **LEE SUNG JIN**



**홀리추얼 울트라 너리싱
어드밴스드 아이 크림**

건조한 눈가 피부에 탄력을 채워
탄탄하고 또렷한 인상으로 가꾸어
주는 아이 크림. 30ml, 9만8천원.



#촉촉수분보호막

#겨울데일리필수템

쫀득한데도 부드럽게 펴 발리고 흡수도 빨라서 좋아요. 저녁에 바르고 자면 다음 날 아침까지 눈가가 촉촉하고 편안해 만족도가 아주 높아요.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밀리지 않아 아침저녁으로 쓰기 딱 좋은 데일리 케어 제품! 눈가에 촉촉한 보습 보호막을 씌우고 싶다면 이거예요.



#쫀득촉촉

#아이크림재입문템

30대가 되면서 눈가 탄력과 주름이 고민이었지만, 예전에 비립종이 생긴 적 있어 아이크림을 바르기가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제형이 쫀득한데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발리고 피부에 찝싹 밀착돼 오래도록 촉촉하게 유지해주더라고요.



#예민한눈가에제격

#주름고민이제결

웃을 때마다 신경 쓰이는 눈가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 제품을 바르고 자면 언제 눈가가 건조했느냐는 듯 밤새 촉촉하게 유지되더라고요. 튜브 타입이라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질까 두려운 눈가와 미간, 입꼬리, 목까지 편하게 바를 수 있어요. 저처럼 눈가가 예민한 편이라면 꼭 써보세요.

#슬로에이징의명가

#전방위눈가케어

눈가 주름, 탄력, 아이백, 기미, 심지어 늘어진 눈꺼풀까지 한 번에 케어하고 리프팅해주는 고효능 아이크림이에요. 저녁에는 톡톡 두드리듯 한 번, 마사지하듯 한 번 더 바르면 눈가가 시원하게 정돈되고, 아침에 바르면 마치 프라이머를 바른 듯 눈가가 탄탄해져 메이크업이 뭉치거나 건조할 걱정이 없어요. 쓰기 편한 튜브 타입이라는 점도 맘에 들어요.



#눈밀고민해결사

#생기있는눈가

쫀득한 제형이 눈가에 촉촉하게 스며들어 부드럽게 흡수되는데, Lift-PLA™와 펩타이드, 히알루론산이 들어서 그런지 건조한 눈가가 촉촉하고 탄탄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메이크업을 해도 밀리지 않고 밤새 건조하지도 않으니 눈가가 고민인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어요.



아름다움의 미래를 짓다, 미지움(MIZIUM)

“과학과 기술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세계 선두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

1954년에 국내 최초의 화장품 연구실을 마련하며 품은 집념.

그 무모한 도전은 오늘날 아시아 뷰티의 정수를 전 세계에 전하는

거대한 혁신의 숲으로 진화했다. 창조적 장인정신이 깃든

아모레퍼시픽 R&I 센터, 그 70여 년 여정이 빚어낸 혁신의 연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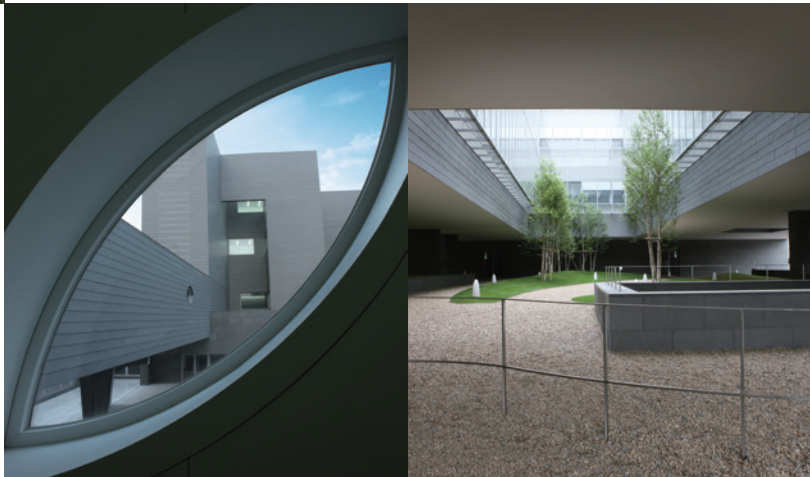
editor **CHOI HYANG J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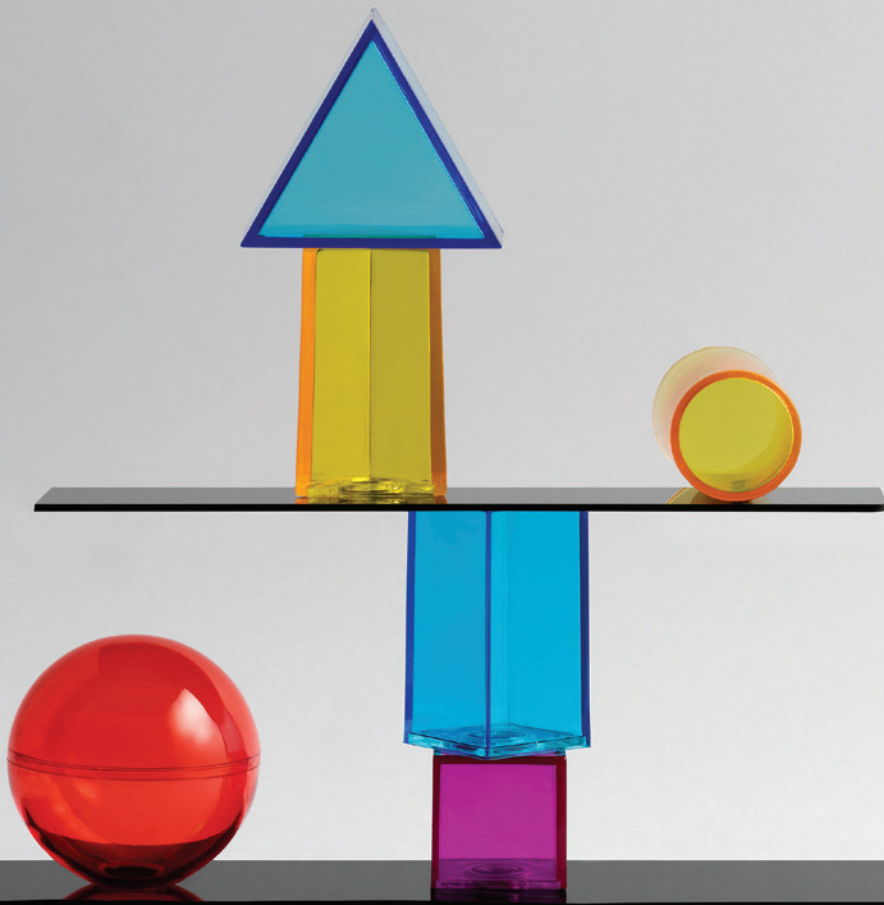


1954년, 화장품 연구라는 개념조차 희미하던 시절에 업계 최초로 연구실을 개설한 것은 위대한 여정의 서막에 불과했다. 서성한 선대 회장은 1957년부터 연구원들을 매년 유럽과 일본으로 보내 선진 기술을 흡수하게 했고,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동양 고유의 문화와 서구의 기술이 조화를 이룬 'ABC 식물성 포마드'를 탄생시켰다. 이는 훗날 전 세계 여성의 화장 문화를 바꾼 '쿠션' 신화의 단단한 뿌리가 되었다. 기술을 향한 강한 집념은 1992년에 제1연구동 성지관(成鎭館)을 완공하며 비약적 성장의 변곡점을 맞인다. 연면적 1만7,200m² 규모의 성지관이라는 탄탄한 기지를 확보한 아모레퍼시픽은 1994년 의약연구소, 2001년 헬스연구동, 2006년 식품연구소를 차례로 설립하며 '토탈 뷰티 케어'의 기틀을 다졌다. 이러한 외연의 확장 속에서도 본질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었다. 1966년에 등장한 'ABC 인삼크림'부터 이어져온 식물에 대한 깊은 이해는 성지관에서 발견한 첨단 과학과 만나 1997년 한방 과학의 결정체인 '설화수'를 탄생시키는 쾌거를 이룩했다. 축적된 기술력은 2010년 '미지움(MIZIUM)'을 통해 창의적 혁신으로 거듭났다. 포르투갈의 거장 알바루 시자가 설계한 이곳은 연구원들이 자연과 소통하며 영감을 얻는 '지혜의 공간'이다. 미지움에서 피어난 창의성은 곧장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갔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함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5대 글로벌 거점 연구소를 통해 현지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또한 존스홉킨스대학교와 진행 중인 New Beauty Research Initiative에서는 '저속 노화 성분'의 피부 효능을 입증해 국제 학회에 발표함으로써, 아모레퍼시픽의 연구 성과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오늘날 아모레퍼시픽 R&I 센터의 혁신은 시대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 디지털, AI와 결합한 맞춤형 뷰티 기술은 최첨단 뷰티 테크로 이어졌다. 사용자의 얼굴을 정밀 측정해 측석에서 마스크팩을 만드는 3D 프린팅 기술부터, 인공지능 로봇 팔이 개인의 피부 톤에 딱 맞는 파운데이션을 제조해 주는 '톤워크', MIT와의 공동 연구로 개발해 피부 노화 원인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 솔루션을 제시하는 '스킨사이트'까지. CES에서 7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한 이 기술들은 아모레퍼시픽이 내다본 미래가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증명한다. 이와 함께 아모레퍼시픽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과 손잡고 글로벌 투자 자문사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혁신 생태계를 키워가고 있다. 뛰어난 내부 연구 인프라와 세계적 연구기관의 권위를 기반으로, 아모레퍼시픽은 단순한 화장품 기업을 넘어 글로벌 뷰티 기술의 미래를 선도하는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포르투갈의 세계적인 건축가 알바루 시자가 설계를 맡아 5년간의 설계 및 건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최첨단 연구 공간으로 완성된 아모레퍼시픽 용인 기술연구원 미지움(MIZIUM).





세로 말고 가로 근육

턱 밑에서 발바닥까지,
몸을 수평으로 지탱하는 근육이
있다. 작은 근육이지만 전신 균형과
젊음을 지키는 숨은 핵심이다.

editor **KI JIHYE**

가로 근육도 관리가 필요해

근육 관리라 하면, 흔히 복근이나 등 근육처럼 세로로 길게 뻗은 근육만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쓸 근육이 있다. 바로 몸을 가로지르며 중력에 맞서 버티는 네 가지 가로 근육이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쉽게 약해지고, 무너지면 얼굴선부터 호흡, 골반 건강, 발끝 균형까지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어떤 근육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자. 첫 번째는 턱 밑 근육이다. 음식 삼키기와 발음을 돕고 얼굴선과 호흡 건강에도 관여한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턱선이 무너지거나 이중 턱이 생기기 쉽고, 심하면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횡격막이다. 폐와 장 사이에 위치해 들숨과 날숨을 조절하는 호흡의 중심 근육이다. 건강한 횡격막은 호흡 효율을 높여 피로를 줄이고 혈액순환과 자세 안정에도 기여한다. 하지만 약해지면 얇은 가슴 호흡만 하게 되어 어깨와 목 근육에 과부하가 걸리고, 만성적인 긴장과 피로로 이어진다. 세 번째는 하부 코어의 기초이자 방광·자궁 장을 지탱하는 골반기저근. 약해지면 요실금과 허리 통증, 성기능 장애 등이 나타나고 하복부와 힙 라인도 무너진다. 마지막은 바로 발바닥 근육. 발바닥 아치를 형성해 체중을 분산하고 충격을 흡수한다. 약해지면 평발, 무릎·골반 통증, 다리 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발은 몸의 기초 지지대라 이 근육의 힘이 허리로 이어지는 체형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근육들을 건강하게 관리하면 동안 얼굴과 슬림한 허리 라인, 안정적인 자세, 편안한 호흡과 보행까지 몸 전체의 균형을 지킬 수 있다. 가로 근육의 존재와 관리에 무심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작은 근육들에 관심을 갖자.

Checklist

- ☐ 자주 코를 골거나, 수면 중 무호흡 증상이 있다는 말을 듣는다.
- ☐ 거울을 볼 때 턱선이 흐릿해지고 이중 턱이 점점 도드라져 보인다.
- ☐ 갈비뼈가 옆으로 퍼지듯 벌어져 상체가 두툼해 보인다.
- ☐ 숨이 자주 가빠지고 깊게 들이마시는 호흡이 잘 되지 않는다.
- ☐ 늘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어깨·목이 자주 뭉친다.
- ☐ 재채기나 웃을 때 소변이 새는 요실금 증상이 있다.
- ☐ 허리 통증이 잦고, 아랫배가 불룩하거나 힙 라인이 쉽게 처져 보인다.
- ☐ 평발이거나 발 아치가 무너져 오래 서 있으면 발과 무릎이 쉽게 아프다.
- ☐ 걸을 때 금세 피로가 쌓이고, 무릎·골반 통증이 동반된다.

※9개 중 3개 이상 해당한다면 가로 근육 강화에 공들일 것.

Quick & Easy Workouts

TONGUE PRESS TO PALATE 5SECS 10R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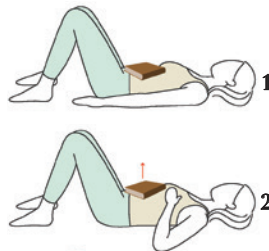
편안히 앉아 코로 숨을 들이마신다. 혀끝을 입천장에 붙여 지그시 누른 채 5초 유지 후 풀고 숨을 내쉰다. 10회 반복해 진행할 것.

CHIN LIFT 5SECS 10R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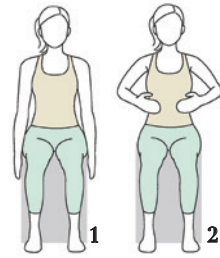
등을 펴고 앉은 채 턱을 천천히 들어 올려 하늘을 본다. 입술을 우~ 하며 뽀뽀하듯 위로 내민다. 5초 유지 후 돌아온다.

BOOK LOADED BREATHING 10R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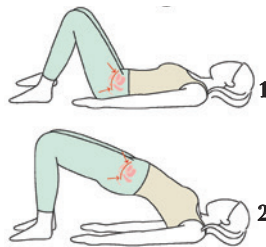
1 바닥에 편하게 누워 무릎을 세우고 배 위에 무거운 책을 올려둔다. 2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책이 위로 부드럽게 올라가도록 하고, 입으로 다시 천천히 내쉬며 내린다. 10회 반복.

RIP EXPANSION BREATHING 10R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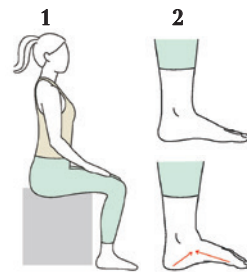
1 의자에 등을 골게 펴고 앉아 어깨의 긴장을 풀어준다. 2 손을 갈비뼈 양 끝단에 가볍게 올린 뒤 입으로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셨다 내쉬며 갈비뼈가 모아지고 좁아지는 것을 느낀다.

BRIDGE WITH KEGEL 10REPS



1 무릎을 세우고 바르게 눕는다. 2 숨을 내쉬며 엉덩이를 들어 올려 브릿지 자세를 취한다. 동시에 골반기저근을 살짝 조이며 3초 유지, 내려오면서 부드럽게 이완한다.

SHORT FOOT EXERCISE 5SECS 10REPS



1 의자에 앉아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다. 2 발뒤꿈치를 붙인 채로 발가락을 구부려 아치를 끌어올린다. 이때 발바닥과 발끝은 바닥에서 떼지 않는다. 5초 유지 후 이완하고 10회 반복한다.

The Unexpected Drama

Same Look, Different Point



하나의 얼굴, 두 개의 감정. 같은 베이스 메이크업 위에서도 단 하나의 포인트가 바뀌면 완전히 다른 인물이 탄생한다. 이번 컬렉션은 '반전 드라마(The Unexpected Drama)'를 주제로, 메이크업의 시각적 변화를 통해 드러나는 감정의 서사를 담았다. 세 쌍의 대비로 구성된 반전 드라마. 같은 얼굴 안에서 서로 다른 감정이 교차하며 헤라 커스텀매치 센슈얼 립 아티스틱 컬러가 만들어내는 결정적 반전의 순간을 느껴보자.

'헤라 커스텀매치 센슈얼 립 아티스틱 컬러'는 아모레성수에서 체험 및 구매 가능한 맞춤형 컬러입니다.

“투명하게 빛나는 광을 표현하고
싶다면? 센슈얼 립 Gloss #H911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 발라보자.
맑고 투명한 광을 표현할 수 있다.”

ARTIST'S TIP



Chapter 1. Melodrama & Thriller

FACE 눈과 입의 색감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캔버스 같은 피부가 중요하다. 얇게 발리면서도 결점은 확실하게 가리는 헤라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 #17N1을 두드리듯 밀착시켜 피부결을 매끈하게 정돈한다. 이어 센슈얼 립 Velvet #H922를 광대뼈 아래쪽을 중심으로 터치해 그윽한 음영을 더한다. 가장 자리는 퍼프로 톡톡 두드려 경계를 자연스럽게 지운다.

EYE Melodrama 센슈얼 립 Gloss #H911을 눈두덩이 중앙에 톡톡 얹은 뒤 브러시를 이용해 양쪽으로 얇게 퍼 바른단. 여기에 헤라 리치 컬러링 워터프루프 마스크라로 뿌리부터 지그시 눌러 올려 또렷한 느낌을 더한다.

Thriller 드라마틱한 무드 변화를 위해 컬러를 과감히 더해 보자. 캐시미어처럼 부드러운 센슈얼 립 Velvet #H951을 아이 홀 전체에 얇게 퍼 바른 뒤 쌍꺼풀 라인 위주로 덧발라 음영감을 쌓는다. 언더 아이래시 라인에는 Velvet #H922로 음영을 연결한다. 브러시로 부드럽게 블렌딩해 두 컬러의 경계를 없애면 보랏빛의 차가움과 브라운의 따뜻함이 만나 감정이 폭발하는 듯한 깊이감이 완성된다. 마스크라를 뽕뽕 칠해 덧발라 강렬한 존재감을 살린다.

LIPS Melodrama 센슈얼 립 Velvet #H951을 입술에 고르게 바른 뒤 브러시로 가장자리를 흐릿하게 스머징한다. 그 위에 같은 톤의 Gloss #H951을 얇게 레이어링한다. 투명한 윤기가 차올라 입술 중심의 강렬한 포인트를 줄 수 있다.

Thriller 멜로드라마 립 바탕 위에 센슈얼 립 Velvet #H951을 입술 중앙에 한 번 더 덧발라 밀도 높은 색감을 완성한다.



Look 1. Melodrama

점차 고조되는 내면의 감정을 표현한 룩. 짙은 플럼 립과 피부 위로 번진 맑은 윤기가 미묘하고 섬세한 감정의 변화를 그려낸다.



Look 2. Thriller

감정의 여운이 폭발로 이어지는 반전의 순간, 스릴러 룩. 멜로드라마 룩에 깊은 음영과 아티스틱한 컬러를 더해 드라마틱하고 강렬한 시선을 완성했다.



Look 1. Sitcom

평범한 일상 속 자연스러운 생기를 담은 시트콤 룩. 피부결이 비치는 내추럴 베이스와 투명한 입술로 꾸미지 않은 듯 현실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Look 2. Fantasy

현실에서 벗어나 환상적인 무드를 담은 판타지 룩. 눈가에 블루와 실버 포인트를 더해 꿈꾸는 듯 몽환적인 홀리데이 분위기를 완성해보자.



Chapter 2. Sitcom & Fantasy

FACE 헤라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 #17N1로 본연의 피부인 듯 내추럴한 베이스를 완성한다.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얇게 펴 바르면 자연스러운 속광이 살아난다. 여기에 화이트 톤의 센슈얼 립 Velvet #H911을 볼 앞쪽에 가볍게 톡톡 발라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살린다. 광대뼈부터 볼까지 맑은 오렌지빛의 Gloss #H921을 두드리듯 발라 은은한 혈색을 더한다.

EYE Sitcom 화이트 컬러인 센슈얼 립 Velvet #H911을 눈 두덩이 전체에 얇게 펴 바르면 자연스러운 톤 업 효과와 함께 한층 깨끗해 보이는 눈매를 연출할 수 있다. 마스크라카는 반투명한 블랙 젤 제형인 에뛰드 아이돌 리얼 래쉬 픽서를 추천한다. 속눈썹 끝만 정리하듯 가볍게 쓸면 또렷하면서도 맑은 눈매가 완성된다.


Fantasy 환상적인 무드를 위해 언더 아이래시 라인에 화이트 컬러인 Velvet #H911로 맑은 빛을 더하고, 눈꼬리에는 선명한 블루 컬러인 Velvet #H943으로 라인을 그려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때 같은 계열의 컬러 마스크라카를 사용하면 통일감을 살리면서도 확실한 차별점을 만들 수 있다. 센슈얼 립 Velvet #H924와 Velvet #H911을 섞어 눈머리에 가볍게 터치하면 밝은 옐로빛 하이라이팅 효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극대화할 수 있다.

LIPS 볼러셔로 사용한 센슈얼 립 Gloss #H921을 입술에도 발라 얼굴 전체의 무드를 맞춘다. 투명한 윤기가 감도는 은은한 오렌지빛 혈색이 맑고 생기 있는 입술로 만들어준다.



“정반대 온도를 가진
블루와 옐로처럼
서로 대비되는 컬러를
조합하면 시선이
머무는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
강조하고 싶은 위치에
더 선명한 톤을
입혀보자.”

ARTIST'S TIP



“데일리 메이크업에 특별한
변화를 주고 싶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센슈얼 립 Gloss
#H991을 바르는 것이다.
일상적인 누드 립 위에
한 겹 더하면 룩의 무드가
드라마틱하게 전환된다.”

ARTIST'S TIP

Makeup & life blending

메이크업 & 라이프 블렌딩은
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시즌별 메이크업
룩입니다. 아모레성수 오리지널
콘텐츠로 시작된 메이크업 &
라이프 블렌딩은 아모레퍼시픽의
다양한 브랜드를 활용해 룩을
완성합니다.



Chapter 3. Romance & Mystery

FACE 촉촉하게 빛나는 베이스를 원한다면 에뛰드 님프 광채 볼류머 투명한 물광이 적당하다. 광채가 필요한 부위에 펴 바르면 타고난 듯 예쁘게 빛나는 피부가 연출된다. 이어 에스쁘아 비글로우 볼륨 쿠션 #20 바닐라를 한 겹 얇게 바르고 커버가 필요한 부분만 덧바른다. 레이어링해도 뭉치지 않고 매끄러운 결이 완성된다. 여기에 센슈얼 립 Velvet #H921로 눈 아래부터 광대뼈까지 넓게 물들이면 수줍어 살짝 달아오른 듯한 온기와 생기가 더해진다.

EYE Romance 센슈얼 립 Velvet #H921을 브러시로 눈두덩이 전체에 얇게 펴 바른다. 헤라 퀘드 아이 컬러 #1 시에나 코랄의 2번 컬러로 눈두덩이와 눈 아래 삼각 존을 채우고, 3번 컬러로 애코살 그림자를 얇게 그려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살린다. 애코살은 에스쁘아 아이 오프닝 팬슬 #7 버터 크림으로 밝히고, 붉은 기가 빠진 에스쁘아 노머징 마스카라 워터프루프 XP #4 딥 브라운으로 부드럽고 또렷한 눈매를 만든다.

Mystery 로맨스 룩의 부드러운 눈매에 빛을 한 겹 더해 신비로운 느낌을 담아보자. 우선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브라운 컬러인 센슈얼 립 Velvet #H922로 음영감을 더한다. 그 위로 실버 펄이 섬세하게 반짝이는 Gloss #H991을 눈두덩이 전체에 얇게 펴 바르면 글로스 특유의 투명한 광과 브라운 음영이 어우러져 오묘한 눈매가 완성된다.

LIPS Romance 센슈얼 립 Gloss #H922를 입술 중앙에 바른 뒤 가장자리를 자연스럽게 퍼뜨리면 잔잔하고 여리한 무드를 완성할 수 있다.

Mystery 여리한 누드 립 위에 센슈얼 립 Gloss #H991을 덧발라 볼륨감을 살린다. 브라운의 차분함과 실버 펄의 투명한 빛이 겹쳐 움직일 때마다 빛나는 글로시 립이 연출된다.



Look 1. Romance

맑은 피부 위 핑크 립으로 부드럽고 여린 감정을 담은 룩. 자연스럽게 정돈된 눈매와 빛이 스며든 듯한 생기로 소녀의 느낌을 표현한다.



Look 2. Mystery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 신비로운 느낌을 더한 미스터리 룩. 오렌지와 화이트 글리터 포인트를 더해 비밀스러운 무드를 담아냈다.



Holitua

울트라 너리싱 어드밴스드 토너 & 에멀전.
각각 150ml, 7만8천원. 120ml, 8만2천원.

토너는 숙건조를 빠르게 잠재우고 피부결을 매끈하게 정돈하며, 에멀전은 크림에 버금가는 보습력으로 촉촉한 수분과 윤기를 공급해 피부를 촉촉하고 탄탄하게 유지시킨다.



Holitua

울트라 너리싱 어드밴스드 아이크림.
30ml, 9만8천원.

건조한 눈가 피부에 탄력을 채워 탄탄하고 또렷한 인상으로 가꾸어 주는 아이크림. Lift-PLA™와 펩타이드, 히알루론산이 들어서 건조한 눈가를 촉촉하고 탄탄하게 가꿔준다.



Holitua

리디파이닝 앰플 4주 프로그램.
5ml x 20ea, 28만원.

4주 프로그램에 맞춘 밀도 높은 케어로 오래된 기미부터 멜라닌, 주름 고민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토탈 안티에이징 앰플. 매주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Editor's Pick

겨울철 건조한 피부를 확실히 책임질 홀리추얼 제품들.

editor **CHOI HYANG JIN**



Holitua

뉴트리 엘릭서 미스트.
140ml, 5만8천원.

가벼우면서도 뛰어난 보습감을 가진 포몰러로 페이스부터 바디까지 케어하는 브라이팅 멀티 유즈 미스트. 겨울철에도 촉촉하게 빛나는 광채 피부로 가꿔준다.



Holitua

인리치드 래디언스 쿠션.
13g x 2ea, 8만2천원.

나이아신아마이드, 트라넥삼산, 엑토인, 세라마이드 등 다양한 스킨케어 성분들이 조화롭게 배합되어 메이크업을 하면서도 안티에이징 케어를 챙길 수 있는 광채 쿠션.



Holitua

블루 PDRN 더블 앰플.
45ml, 9만5천원.

1제 고농도 효소와 2제 Blue PDRN™으로 구성된 듀얼 포몰러 앰플. 전문적인 턴오버 케어와 리페어 케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혁신적 제품이다.



향장

HYANGJANG

no.669

